

한국어의 동사(III)

김현권

한국방송대학 불어불문학과 교수

한국어 동사는 형용사와 더불어 용언이라는 품사범주를 형성하며, 체언(명사), 수식언(부사)과 함께 한국어 어휘부의 근간을 구성한다. 한국어에서 형용사는 형태통사론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볼 때 동사와 거의 동일한 특성을 지니므로 전통적으로 용언이라는 범주 속에서 기술되고 분석되어 왔다. 한국어 동사는 한국어의 유형론적, 구조적 특성상 활용이 복잡하여 주로 형태론의 영역에서 많이 분석되었고, 근래에는 새롭고 다양한 통사론 연구의 전개와 더불어 이 영역의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최근 어휘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새로운 사전의 개발 작업과 어휘의미의 표상이 중요한 관심 대상으로 부각되면서 어휘의미론의 연구가 참신하게 여러 각도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은 그 성과가 몹시 미진하다고 하겠다. 여기서는 한국어 동사가 지니는 몇몇 의미론적 면모와 특성들, 그리고 분류의 문제 등을 간략히 살피고자 한다.

1. 동사의 의미 기술

동사의 의미를 어휘론적으로 접근할 때 명칭론(onomasiology)과 어의

론(semasiology)의 두 관점에서 관찰할 수 있다. 전자는 의미에서 형태의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고, 후자는 형태에서 의미의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후자의 접근방식은 사전적 기술이 대표적이고, 전자는 순수히 의미, 개념을 연구하는 입장이다.

형태에서 의미로 접근할 때 우선 기술의 단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예컨대 동사는 그 범위를 어떻게 한정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사전에서 ‘노려보다’, ‘짜려보다’, ‘내려다보다’는 표제어인데 ‘삶아먹다’, ‘찌먹다’, ‘사다먹다’는 표제어로 등재하지 않고 있다. ‘겉먹다’는 표제어인데 ‘밥먹다’는 왜 표제어가 아닌지? ‘밥을 먹다’, ‘미역국을 먹다’, ‘마음을 먹다’에서 ‘먹다’가 동일한 동사인지 아닌지? 이처럼 표제어의 범위 한정에 따라 동사 의미기술의 범위와 방식이 달라지고, 어휘수가 가변적이 된다. 특히 한국어는 명사와 동사 사이의 조사가 생략되는 현상이 빈번하고(겉먹다, 밥먹다, 침 흘리다 등), 동사와 동사의 연결구성이 많고(짜려보다, 찌먹다 등), 한자어와 고유어의 결합이 많아(결합하다, 결합시키다, 결합되다 등) 이를 통사적 구성으로 보아야할지 복합어로 한정해야 할지를 판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단위의 결정과 한정에는 언어이론 뿐만 아니라 사전편찬의 실체적이고 응용적인 고려가 개입된다.

이러한 단위가 결정되면 그 다음으로 이 동사의 의미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기술을 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부딪치는 문제가 다의(polysemy) 기술이다. 다의적 의미의 기술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는데 그것은 동사의 의미가 동사의 어휘 단독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형태, 통사, 문법, 의미의 상호 작용 속에서 한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논의하기로 하자.

이와 대조적으로 의미와 개념을 명칭론적 관점에서 의미 연구를 시도한다면 동사 어휘부를 구성하는 의미 전체의 조직과 구조 그리고 이 조직을 구성하는 원리 및 규칙, 의미들의 분류체계와 계층, 의미들의 상호 관계 한정과 관계 유형 등등의 문제를 다루게 된다. 이러한 연구 방식 역시 순수히 의미론적 시각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어학의 다른 영역(형태론,

통사론, 문법론, 화용론 등)과의 연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약 2만 5천개 이상의 표제어휘로 이루어지는 한국어 동사 어휘부의 규모를 고려할 때 이러한 방식의 의미 기술의 방대함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최종 의미기술의 단계로 의미 단위 개개에 대한 정의(definition)를 부여하고, 정확한 용례의 제시를 통해서 이를 예증해 보임으로써 한국어 화자가 가진 동사의 의미를 상당 부분 외재적으로 표상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 동사의 의미

동사는 명사와 함께 문장을 구성하는 핵심요소이다. 의미론적 관점에서 이 동사는 술어(predicate)라고 부르고, 이 술어를 중심으로 문장의 의미를 구성하는 데 참여하는 명사를 논항(argument)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의미론을 다룰 때는 동사, 명사 등의 명칭을 편의상 사용하지만 사실은 술어와 논항으로 지칭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동사 ‘죽다’, ‘사망하다’와 명사 ‘죽음’, ‘사망’, 형용사 ‘빨강다’와 명사 ‘적색’, 동사 ‘돕다’와 명사 ‘도움’, 그리고 명사+동사의 연쇄로 구성되는 ‘도움을 주다’는 모두 의미적으로 보았을 때 각기 동의적(synonymic)인 것이며, 단지 문장에서 문법적으로 실현될 때 어떤 품사와 어떤 표현으로 실현되느냐의 차이 뿐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동사의 의미를 말할 때 그것은 문장에서 품사적으로 실현된 문법범주로서의 동사이자 의미론적인 차원에서는 술어이다. 이 술어는 전형적으로 동사와 형용사로 실현되지만, 명사로 대응될 수도 있다. 술어는 반드시 그것이 의미적으로 관계하는 논항을 가진다. 예컨대 동일한 술어적 의미에 대응되는 술어명사 ‘사랑’과 동사 ‘사랑하다’는 두 개의 논항, 즉 사랑하는 사람(X)과 사랑받는, 사랑의 대상이 되는 대상(Y)을 가진다.

(1) ㄱ. 사랑하다(X, Y)

ㄴ. 사랑(X, Y)

이 ‘사랑’, ‘사랑하다’라는 술어와 두 논항의 의미관계는 화자가 사태에 대해 그 사태의 어떠한 국면을 어떠한 시각에서 표상하느냐에 따라 다음의 여러 언어표현 — 문장과 명사구 — 으로 실현될 수 있다.

- (2) ㄱ. 철수는 영희-(와+를) 사랑한다
- ㄴ. 철수는 영희에게 사랑을 (느낀다+준다)
- ㄷ. 영희는 철수에게(E+서) 사랑을 받는다
- ㄹ. 철수와 영희는 (서로+E) 사랑한다
- ㅁ. 철수는 영희와 (서로+E) 사랑에 빠졌다

- (3) ㄱ. 철수의 영희에 대한 사랑/영희에 대한 철수의 사랑
- ㄴ. 철수의 영희 사랑
- ㄷ. 철수와 영희-(사이+E)-의 사랑

이처럼 일정한 술어의 의미가 표상하는 사건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느냐에 따라 참여자(철수, 영희)의 역할(경험자, 피험자/대상)이 달라지고, 거기에 따라 구문 선택(타동사 구문/자동사 구문)과 어휘 선택(사랑하다, 사랑// 느끼다, 주다, 받다, 빠지다), 그리고 이에 따라 보어 논항에 뒤따르는 격조사가 달리 선택된다. 이제까지 우리는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우선 언어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 (4) ㄱ. (1)ㄱ-ㄴ에서의 표상이 보이듯이 술어는 논항과 함수 관계로 나타낼 수 있다.
- ㄴ. 술어는 동사만 아니라 형용사 또는 명사 범주에 속하는 어휘들과도 대응된다.

그러나 술어-논항의 결합구조는 어휘/문장 차원에서 언어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실현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일반적 시각에서 한국어 동사의 의

미론적 특성을 간략히 살펴보자.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어 동사의 의미 구조를 유형론적으로 특징짓는 작업과도 연계가 된다.

3. 동사의 의미와 문장 구조

술어와 그것이 관련되는 논항들이 문장에서 실현되는 방식은 다양하고, 이 논항과의 관계에서 (술어)동사(이하 여기서는 술어 중 동사가 문제시 되므로 동사로 약칭)의 의미가 명세된다. 개별 동사의 의미는 단독으로는 모호하고, 이 논항과의 관계가 정확히 확정되어야 그 분명한 의미가 한정된다. 예컨대 ‘쓰다’란 동사를 보자.

- (5) ㄱ. 철수는 시를 쓴다.
 ㄴ. 철수는 모자를 쓴다.
 ㄷ. 철수는 기름을 쓴다.

이 ‘쓰다’의 의미는 뒤의 명사의 의미에 의해 한정된다. ‘시를 쓰다’에서는 ‘시를 짓다’, ‘작성하다’의 의미이며, 이 행위의 결과로 시라는 텍스트가 작성된다. 또 ‘모자를 쓰다’에서는 ‘머리에 착용하다’의 의미이며, 마지막으로 ‘기름을 쓰다’에서는 ‘(무엇을 하기 위해) 사용하다’의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동사의 의미표상을 더욱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 동사들의 의미 명세에 관련되는 논항들을 추가해 보면 된다.

- (5') ㄱ. 철수는 새 공책에 시를 쓴다.
 ㄴ. 철수는 늘 머리에 모자를 쓴다.
 ㄷ. 철수는 시금치무침에 참기름을 쓴다.

이렇게 ‘N-에’ 연쇄가 첨가됨으로써 ‘쓰다’ 각각의 의미는 더욱 구체적으로 명세된다. 이들 연쇄가 적절한 목적어 논항과 결합되지 않으면 이 문

장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된다.

- (6) ㄱ. *철수는 시금치무침에 시를 쓴다.
- ㄴ. *철수는 새 공책에 모자를 쓴다.
- ㄷ. *철수는 머리에 참기름을 쓴다.

그래서 ‘새 공책’과 ‘시’, ‘머리’와 ‘모자’, ‘시금치무침’과 ‘참기름’은 ‘쓰다’란 술어에 의해 서로 의미적으로 연관을 맺고, ‘쓰다’의 의미 명세에 기여한다. 즉 ‘새 공책’은 ‘시’라는 텍스트가 쓰이는 장소적 매체 역할을 하는 곳이고, ‘머리’는 ‘모자’가 착용되는 신체 부분이며, ‘시금치무침’은 ‘참기름’이 사용되어 만들어지는 가공물이다. 그러면 또 다시 동사 의미를 한정하는 요소를 하나 더 추가해 보자.

- (5'') ㄱ. 철수는 몽당연필로 새 공책에 시를 쓴다.
- ㄴ. 철수는 왼손으로 머리에 모자를 쓴다.
- ㄷ. 철수는 시금치무침에 기름을 다량으로 쓴다

위의 각 예문에서 ‘N-로’ 연쇄는 의미/통사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갖고 사용된 것은 아니다. (5'')ㄱ이 표상하는 행위의 사태에는 시를 쓰는 도구 연필로가 개념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한다. ‘N-로 쓰다’로 묶일 수 있는 명사들은 필기도구의 부류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는데, N의 위치에는 연필 이외에 여러 필기 도구 명사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왼손으로 모자를 쓰다’에서 ‘왼손으로’는 흔히 문장에서 실현되지 않는다. 더욱이 손 이외에는 모자를 쓰는 데 이용되는 도구나 수단들이 특별히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손으로’ 연쇄에 논항의 지위를 부여한다고 해도 그것은 잠재적으로만 존재하며, ‘쓰다’란 술어에 대해 다른 명사들과 동질적인 부류를 형성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후치사구 ‘다량으로’는 양을 나타내는 성분으로, ‘쓰다’란 술어의 의미보다는 ‘참기름’이란 논항과 의미적으로 연관을 맺으며

그 양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이 술어의 의미 명세에는 아무런 역할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문장의 문법성에 필수적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술어와 의미적 연관을 지니면서 술어의 의미를 한정하고 명세하는 논항들이 과연 어떤 것이냐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비록 문장에서 실현되지 않더라도 그 의미명세에 필요한 논항들이 있다. 그리하여 (5)ㄱ-ㄴ이 예시하는 쓰다 동사의 술어-논항 구조가 문장으로 실현될 때의 구문 유형은 각각 다음과 같은 구조로 표상될 수 있고, 이 구조에 의해 한정된 논항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의미가 명세된다.

(7) ㄱ. 쓰다1 : N0-이 N2-에 N1-을 N3-로 V

ㄴ. 쓰다2 : N0-이 N2-에 N1-을 V

ㄷ. 쓰다3 : N0-이 N2-에 N1-을 V

물론 이들 ‘쓰다’의 의미가 이미 서로 다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들이 문장에서 실현되는 방식도 다양하다. 즉 이러한 의미차이가 문장의 차원에서도 서로 다르게 반영된다. 의미차이가 문장 구조의 구성에 관여한다는 점을 관찰할 수 있다. 우선 ‘N1-을’ 또는 ‘N2-에’의 위치에 문장성분이 올 수 있는지 살펴보자.

(8) ㄱ. 쓰다1 : 철수는 이 강의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썼다.

철수는 이 강의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는 것을 썼다.

철수는 이 강의에 대해 어떻게 개선할지를 길게 썼다.

ㄴ. 쓰다2 : 불가능

ㄷ. 쓰다3 : 철수는 시금치를 무치는 데에 참기름을 쓴다.

위의 예문에서 보는 바대로 ‘쓰다’1은 글을 쓰는 내용, 즉 ‘이 강의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어떻게 개선할지’가 문장적 성분으로 N1의 위치에 분포

한다. ‘쓰다’2는 이러한 문장성분이 ‘N’1의 위치에 분포할 수 없다. ‘쓰다’3은 문장성분이 ‘N’1의 위치가 아니라 ‘N’2의 위치에 분포하고, 그것은 N1이 사용되는 용처를 가리킨다. 이와 같은 통사적 차이는 ‘쓰다’의 동의어인 ‘기록하다’, ‘작성하다’나 ‘쓰다’1과 유사한 의미부류(의사소통의 동사)에 속하는 동사들에서도 거의 그대로 드러난다.

(9) 쓰다1의 동의어 : ‘적다’, ‘기록하다’, ‘작성하다’ 등

- ㄱ. 철수는 이 사건이 아주 특이하다고 (적었다+기록했다)
- ㄴ. 철수는 이 사건이 아주 특이하다는 것을 (적었다+기록했다)
- ㄷ. 철수는 이 사건에 대해 왜 그것이 특이하게 진행되었는지를 (적었다+기록했다)

(10) 의사소통 동사부류 : ‘말하다’, ‘전하다’, ‘알리다’, ‘보고하다’ 등

- ㄱ. 철수는 이 사건이 아주 특이하다고 (말했다+알렸다)
- ㄴ. 철수는 이 사건이 아주 특이하다는 것을 (말하지+알리지) 아니했다
- ㄷ. 철수는 이 사건에 대해 왜 특이하게 진행되었는지를 (말했다+알렸다)

그러므로 의미적으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의미부류에 속하는 동사들은 통사적으로도 상당히 유사한 행태를 보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의미와 통사구문이 별개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요소가 상호 작용을 통해 동일한 일정 패턴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우리는 앞에서 진술한 언어학적 관찰을 더욱 구체화 할 수 있다.

(11) ㄱ. 동사의 의미는 그것이 지배하는 논항들을 개별 동사마다 명세함으로써 한정된다.

- ㄴ. 동사의 의미와 관련하는 논항은 통사적으로 실현되나 구조적

으로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 ㄷ. 의미적 논항의 통사적 실현과 그 범주화는 언어에 따라 다르다.
- ㄹ. 의미적으로 비교적 동질적인 의미부류에 속하는 동사들은 대체로 동일한 통사적 행태를 보인다.

4. 동사와 논항의 의미관계

통사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쓰다’의 구문을 ‘N’1의 어휘적 실현에 상관 없이 ‘N0-이 N2-에 N1-을 V’처럼 일반화된 도식으로 표현하듯이, 의미적 차원에서도 술어와 논항들의 의미관계를 개별적이고 세부적으로가 아니라 일반화된 관계로 나타낼 수 있다. 일정한 술어에 대해 논항들이 갖는 이 일반화된 의미관계를 의미역(semantic role)이라고 한다.

예컨대 ‘철수가 연습장에 이름을 쓴다’에서 ‘쓰다’ 행위에 대해 논항 ‘철수’는 행위주(agent)이고, ‘연습장’은 장소(location), ‘이름’은 대상(theme)이 된다. 여기에서 행위주란 술어가 표상하는 행위를 의도적으로 행하거나 유발시키는 논항이다.

대상은 술어가 표현하는 행위나 과정의 결과로서 영향을 받지만 그것을 지배하거나 유발시키지 못하는 논항이다. 장소는 행위주나 대상 또는 기타의 의미역이 위치하는, 또는 그것의 이동이 연루시키는 물리적 또는 추상적 공간을 나타내는 논항이다.

또 ‘철수는 영수에게 책을 주었다’는 문장은 <행위주-도착점(goal)-대상>의 의미역이 논항들 각각에 부여된다(물론 명칭을 달리 하여 ‘영수에게’를 수혜자(beneficiary)라고 하기도 한다). ‘철수는 개를 무서워 한다’에서 술어와 관련하는 논항들의 의미역은 <경험주(experiencer)-영향주(effector)>이고, ‘철수는 서울에서 떠난다’에서는 <행위주-출발점(source)>의 의미역이 논항에 부과된다.

경험주란 술어가 표현하는 심리상태(지각, 감정, 인지 등)의 경험주체가

되는 논항이고, 도착점과 출발점은 각각 술어가 표현하는 이동이나 변화의 끝점이나 지향점과 시작점을 각각 나타내는 시공간 또는 추상적 실체의 논항이다. ‘철수가 연필로 글을 쓴다’에서 ‘연필로’는 도구(instrument)이고, ‘철수가 다리로 강을 건넌다’에서 다리로는 경로(path)가 된다.

동일 술어에 대해서 구문이 동일하더라도 논항의 성질이 다르면 다른 의미역이 부과될 수 있고, 반대로 술어가 달라 구문이 다르더라도 술어와 논항의 의미관계가 동일하면 동일 의미역을 부여받을 수 있다. 예컨대 ‘나는 개가 무섭다’/‘나는 개를 무서워한다’ 쌍의 문장에서 구문은 다르지만 나와 개 사이의 의미관계는 동일하다고 보아, 두 문장에서 동일하게 이들에게 <경험주-영향주>로 의미역이 부과된다. 한국어 동사에서 경험주가 주어로 실현되는 동사 부류는 감정, 지각을 나타내는 부류들이며, 영향주는 영어에서처럼 주어로는 거의 실현되지 않는다.

또 한국어는 영어 등의 언어와 달리 명사가 문장 구성성분이 될 때 조사가 부착되어, 이 조사가 술어-논항의 의미역 관계를 표출하는 데 역시 기여하고 있다. 예컨대 ‘하늘이 별들로 반짝인다’/‘하늘에 별들이 반짝인다’와 같은 유형의 격조사 교체구문에서는 <대상-영향주>/<장소-대상>의 의미역 관계를 볼 수 있다.

동사의 의미를 특징지을 수 있는 의미역 목록(의미역의 수와 종류)이나 의미역의 정의는 학자들에 따라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일정한 술어에 대한 논항들의 의미부류의 의미적 역할 관계를 드러내줌으로써 술어의 의미부류를 한정하는 데 기여한다. 예컨대 <경험주-영향주>로 특징지어지는 술어의 의미부류는 감정동사(verbs of emotion)('슬퍼하다', '좋아하다', '두려워하다', '미워하다' 등)로 범주화할 수 있다. 또한 <경험주-대상>의 의미역으로 특징지어지는 술어는 지각동사(verbs of perception)(보다, 듣다, 느끼다 등)로 묶일 수 있다.

의미역이 술어와 논항의 의미관계에서 명사논항에 부여되는 만큼 이 의미역은 술어의 의미부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 또한 의미역의 결정에도 이 술어부류가 영향을 미친다. 즉 특정부류의 술어 영역에는 그 영

역을 의미적으로 특징짓는 의미역이 사용된다. 예컨대 ‘사다’/‘팔다’의 상거래 의미부류에 속하는 술어들에서는 가격을 나타내는 의미역이 필요하고, 이동의 하위부류 술어에서는 이동의 경로나 도구의 의미역이 필요하다.

(12) ㄱ. 철수는 이 책을 업자에게(서) ‘2만원에’ 샀다/팔았다.

ㄴ. 철수는 김이사에게 물품을 ‘항공으로’ 발송했다.

한 언어의 술어와 논항들의 의미관계를 나타내는 이 의미역은 그 수가 너무 적으면 의미역이 너무 일반적이어서 술어와 논항들의 의미관계를 적절히 표상하지 못하고, 반대로 너무 수가 많아 의미역 사이의 구별이 어려워지면 이를 논항에 정확히 부여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그러므로 술어의 의미부류(그리고 전문 영역)에 따른 의미역 설정이 바람직하다. 행위성/의도성/사역성의 정도에 따른 행위주의 세분화(‘죽이다’/‘살해하다’, ‘총살하다’/‘총살시키다’), 기준(규범), 시간(시점, 기간), 이유(원인), 목적(결과), 양태, 조건, 용도, 동반, 방향, 정도(강도, 속도), 질량, 속도 등의 가능한 다양한 의미역 설정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역이 사용되는지의 여부는 경험적 기술의 문제이다. 따라서 의미역의 보편적인 집합에서 출발하기보다는 의미역이 언어에 따라 실현되는 방식과 절차 그리고 그 범주들을 서로 비교하는 것이 유형론과 보편성을 발견하는 첩경이 된다.

여기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3) ㄱ. 논항의 의미역은 논항의 의미유형과 술어의 의미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정의되므로 술어의 의미구조 파악을 위해 논항들의 일반화된 의미범주인 의미역을 이용할 수 있다.

ㄴ. 의미역은 술어의 의미부류를 특징짓는다. 따라서 의미부류(와 영역)에 따라 의미역의 수와 종류는 달라질 수 있다.

ㄷ. 한국어에서 논항의 의미역은 통사구문의 구성요소인 조사에 의해 명시적으로 표지될 수 있다.

5. 한국어 동사의 의미적 분류

동사의 의미분류는 동사 어휘부 전체와 관련되어 있으면서 또 한편 개별 동사의 다의 구분과도 연관되어 있다. 한국어에서 한 동사가 평균 2.5개의 다의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면 약 2만5천 어휘나 되는 동사들을 의미적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간단한 작업이 아니다. 또한 그 분류가 나뉘가지처럼 분지되는 것이 아니라 부류가 상호 교차하기도 하고, 동일 층위에서 동사가 의미부류에 따라 크고 작은 수의 의미로 구성되기도 하고, 동일한 의미부류에 속하는데 하나의 최상위어로 묶이지 않고, 둘 또는 세 개의 상위어를 가지기도 한다.

지금까지 많이 한국어 동사에서 논의된 주요 의미부류들로는 이동동사(‘가다’/‘오다’), 감정·심리동사(‘사랑하다’/‘놀라다’), 지각·인지동사(‘보다’/‘알다’), 발화수행동사(‘말하다’/‘경고하다’), 상태·소유동사(‘속하다’/‘소유하다’), 상태변화동사(‘끓다’/‘식다’), 창조·파괴동사(‘만들다’/‘부수다’) 등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의는 이들 부류 동사들이 지닌 통사의미적 특성들을 분석한 것이고, 동사의 분류체계(taxonomy)를 구축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오늘날 이러한 분류학적 목적으로 동사의 의미관계를 이용하여 동사들을 분류하려는 시도도 있고, 통사적 기준이나 특정 문법적인 특성에 입각해서 그 부류를 분류하기도 한다. 전자는 워드넷(WordNet)이 택한 방식이다. 후자는 상당히 일반화된 동사분류 분류방식인데 기본원리는 구문의 교체관계유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예컨대 장소교체구문은 ‘하늘에 별들이 반짝인다’/‘하늘이 별들로 반짝인다’와 같은 것이다.

다음으로 고려할 수 있는 분류체계는 일정한 의미자질 또는 성분이 동사의미에 어떻게 통합되어 어휘화되어 있는가에 따라 그 어휘화 양상의 유형을 분석하는 것이다. 예컨대 ‘굴러가다’는 이동의 의미와 이동의 양태(manner)를 나타내는 의미성분이 통합하여 어휘화되어 있고, ‘도강하다’는 이동과 함께 경로(path)의 의미가, ‘이륙하다’는 이동과 배경(ground)의 의

미가 어휘화되어 있다. 이처럼 어휘에 내재하는 의미들을 분석하면 의미범주들에 의해 동사들이 분류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범주들이 어휘화되는 방식이 언어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고, 여기에 근거해서 언어들의 유형을 분류할 수도 있다.

동사에 특징적이면서도 동사를 아주 동질적인 부류로 분류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식은 한 동사와 이 동사의 양태어(troponym)로 구성되는 집합이다. 즉 양태가 어휘화된 동사들이 하나의 의미적 집합을 이룬다. 예컨대 ‘사망하다’, 죽다의 양태의 동사는 다음과 같다.

- (14) 고사하다/압사하다/익사하다/병사하다/추락사하다/감전사하다/소사하다/동사하다/질식사하다/아사하다/괴사하다/객사하다/옥사하다/전사하다/급사하다/즉사하다/횡사하다/몰사하다/요절하다
...

한자어의 경우에는 이처럼 죽는 양태(원인, 장소, 시간 등)가 기본적 술어의 의미에 포함되어 어휘적으로 실현되지만, 순수 한국어의 경우에는 연쇄동사로 실현된다. 즉 ‘동사+동사’의 구성에서 앞의 동사가 양태 부사 역할을 한다. 그러나 위의 모든 동사가 연쇄어 구성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연쇄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사와 별개의 여러 양태부사 또는 부사어가 사용된다.

- (15) ㄱ. 깔려죽다, 빠져죽다, 떨어져죽다, 말라죽다, 얼어죽다, 굶어죽다, 숨막혀죽다, 타죽다 ...
ㄴ. 병으로 죽다, 그 자리에서 죽다, 배위에서 죽다, 전쟁에서 죽다, 갑자기 죽다, 젊어서 죽다, 모두 죽다 ...

반대로 이 고유어의 연쇄어 구성이 가능하나 한자어로 어휘화되지 않은 동사도 있다.

(16) ㄱ. 맞아죽다, 찢려죽다, 터져죽다

ㄴ. *타박사하다, *과열사하다

어휘에 따라 이러한 양태어가 발달해서 어휘군을 형성하는 동사(예컨대 ‘먹다’, ‘죽다’ 등)가 있는가 하면 이러한 양태의 동사가 별로 없는 동사(예컨대 ‘걷다’, ‘듣다’ 등)도 많다. 한국어에서는 고유어와 한자어 두 계열이 있으므로 이들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통사의미적 측면에서 조사해 본다면 흥미있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인지적인 측면에서 양태어가 발달한, 즉 어휘화된 양태어가 많은 어휘부류와 그렇지 않은 부류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하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그리고 이 양태어 정확한 의미범주를 분석해 보아야 한다. 이 범주는 언어사용의 화용적, 인지적, 문화적 요소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어휘화된 요소는 지각자의 주의를 가장 잘 포착한 것이거나 기존의 규범에서 벗어난 것, 부정적인 것일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이렇게 양태어가 발달한 동사들을 언어들 간에 서로 비교해 보면 차이가 나고, 역시 그 의미범주를 비교해서 언어들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6. 동사의 의미와 다의

앞의 논의에서 ‘쓰다’가 형태는 동일하지만 의미적, 통사적, 어휘적으로 서로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동일한 형태가 실질적인 언어행태를 보일 때 이를 동형어(homonym)라 부른다. 사전에서 동형어는 별개의 단어로 간주하여, 표제어를 달리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동형 구분이 명확한 경우도 있으나 구분이 모호한 경우도 많다. 그것은 동사의 다의와의 관계 때문이다. 즉 하나의 표제어 아래에서 의미를 구분할 것인가, 아니면 이 의미를 별도로 구분해서 별개의 표제어로 제시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동형과 다의의 구분은 사전기술의 입장(이론적, 실제적)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예컨대 ‘고운말을 쓰

다’와 ‘때를 쓰다’에서 이 ‘쓰다’를 어떤 사전에서는 다의어로 처리하나 또 다른 사전에서는 동형어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더 어려운 것은 하나의 표제어 아래에 이 어휘의 의미를 어떻게 구별하고, 이들의 관계를 잘 배열하느냐 하는 다의와 관련된 문제이다. 예컨대 ‘쓰다1’의 예구들을 보자.

- (17) ㄱ. 붓글씨를 쓰다
 ㄴ. 휴장이라고 쓰다
 ㄷ. 편지를 쓰다
 ㄹ. 일기를 쓰다
 ㄺ. 책을 쓰다
 ㄻ. 원고를 쓰다
 ㄼ. 글을 쓰다
 ㄽ. 소설을 쓰다
 ㄾ. 논문을 쓰다
 ㄿ. 계약서를 쓰다
 ㅋ. 곡을 쓰다
 ㆁ. 느낌을 쓰다
 ㆁ. 체험한 것을 쓰다
 ㅎ. 수표를 쓰다
 ㅏ. 소크라테스에 대해 쓰다
 ㅑ. 보고 느낀대로 쓰다
 ㅓ. 영어로 쓰다

이 예구들에서 사용된 ‘쓰다’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서로 다소 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구별해야 할지 판단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우리가 앞에서 ‘쓰다’의 동형어를 구별하듯이 이 다의를 구별해 볼 수 있다. 즉 논항의 의미적 성질과 특성들을 자세히 구별할 수 있다면 이 의미

적 차이가 ‘쓰다1’의 의미에 투사가 될 것이다. 우리는 여러 통사적, 문법적, 의미적인 절차와 분석을 통해 이 ‘쓰다1’의 의미를 몇 개의 다의로 구분할 수 있다(자세한 분석은 생략한다). 연세 한국어사전에서는 ‘쓰다1’의 용법을 세 가지로 나누고 있고,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두 개의 다의로 구분하고, 그 하위에 각각 두 개의 의미 용법을 제시하고 있다. 다의 구분은 형태론적, 통사적, 의미적, 어휘적인 여러 층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특히 각 용법에 사용된 논항들(잠재적, 명시적 의미논항)의 의미관계를 충분히 고려해야 각 용례에서 사용된 동사의 의미 구별이 드러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원리가 동형/다의 구분에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도 추가적으로 지적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동사의 다의 구분을 위해 이 논항의 의미적 부류를 동질적으로 잘 한정하고 정의할 필요성이 있다. 이 논항부류를 동질적인 의미적 부류로 특징짓는 술어, 즉 적정술어에 의해 한정된 이 논항부류를 대상부류(object class)한다. 예컨대 텍스트라는 대상 부류는 적정술어 ‘쓰다’, ‘읽다’, ‘이해하다’, ‘요약하다’, ‘번역하다’ 등에 의해 정의될 수 있다.

다의와 관련해서 다의의 규칙성을 잘 관찰할 필요가 있다. 즉 다의 관계에 있는 의미들 간에 체계적인 대응 또는 전환이 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장소 변화(이동)의 동사를 보자. ‘차가 가다’, ‘바위가 움직이다’/‘바위를 움직이다’, ‘배가 가라앉다’/‘배를 가라앉히다’, ‘물에 빠지다’, ‘낙엽이 떨어지다’에서 각 동사들은 모두 심리적 변화를 의미하는 동사로도 사용된다.

(18) ㄱ. 정이 가다

- ㄴ. 마음이 움직이다/마음을 움직이다
- ㄷ. 화가 가라앉다/화를 가라앉히다
- ㄹ. 환상에 빠지다
- ㅁ. 정이 떨어지다

즉 이들 부류의 동사들은 모두 장소변화 → 심리변화의 대응을 체계적

으로 보여주므로 체계적 다의에 속하게 된다. 이는 은유에 의한 개념의 일반화로서 구체의미에서 추상의미로 의미전환이 일어나 생긴 것으로 설명한다. 동사의 영역에서는 행위와 행위의 원인(사역), 행위와 행위의 결과, 행위와 행위 양태 등의 다의 의미들의 체계적 대응을 관찰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다의의 체계적 대응은 위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일정한 의미부류들 간에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대응양상의 유형을 발견하기 위해서도 다의의 정확한 구분과 의미분류가 필요하다.

7. 맺는말

한국어 동사의 의미론적인 특성을 지적하기 위해서는 동사 어휘부 전체에 대한 광범한 분석과 기술이 전제되고, 그 특징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의미론적 원리와 규칙, 언어의미적 매개변향과 속성들을 찾아 제시하는 일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들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인식을 위해서는 그것들을 유형론적 관점에서 타언어와 비교해야 한다. 특히 동사의미론에서는 이와 같은 언어유형론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익한 소재들이 많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작업의 한 단초만을 제공했을 뿐이다.